

#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세션 16, 요나, 역사성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요나서 소개, 역사성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요나서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2서와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집중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에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적인 요인은 이 책에 대해 새로운 것, 또는 우리의 이해에 뭔가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비유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역사적 기록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증거,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호세아에 대한 논의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점이나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것을 요나서에 대한 토론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메시지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호세아서에서 내가 이해하게 된 것 중 하나는 선지자가 자신의 메시지와 이전에 구약에 대한 언급을 엮는 방식입니다. 성서의 전통이나 구약의 사건. 시간을 내어 이러한 내용 중 일부를 읽고 생각해 보면 구약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가 전하는 소식의 힘과 힘, 수사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판적 학문의 개념은 오경이나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늦은 시기에, 즉 포로 기간이나 포로 기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구약이 최종 형태에 도달하게 된 구약을 편집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전통과 사물에 대한 호세아의 친숙함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전통과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이것들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호세아서에 여러 번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 사건이자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따라서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일부는 구원 역사가 곧 뒤집힐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출애굽에 관해 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를 부르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었느니라. 이는 그 첫 번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난 후에 주님은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 생활에서 떨며 애굽의 새처럼, 앗수르 땅의 비둘기처럼 떨며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는 출애굽기 전통이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나는 이것이 신약성서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라고 말한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방금 호세아 11장 1절을 읽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마태는 여기서 호세아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는 모형론의 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패턴은 예수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대표이신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올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과 신약의 예수님의 삶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이시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실 분이라는 생각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Greg Beal이 지적했듯이 마태는 호세아의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호세아에는 마지막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가져올 것입니다. 그 정도. 호세아서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언급되는 구약의 또 다른 전통은 족장 야곱과 그의 삶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꾸짖으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리라.

그는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항상 아주 모범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부정직함, 속임수, 장자권을 훔치는 일, 형 에서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세아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태 속에 있을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는 천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울면서 그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야곱은 파란만장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아내로 섬기며 아내로 양을 지켰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는 출애굽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며, 선지자를 통해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방 땅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래에도 그 역사를 반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도시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 약속의 메시지가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반전시킵니다. 왜냐하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죄가 있는 곳이고, 성전의 규칙을 불순종한 아간에게 행해진 형벌이 궁극적으로 그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며 그가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이 거기서 응답하리로다. 이것과 결합된 출애굽기에 대한 또 다른 언급.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의 깊이는 호세아 9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때와 같이 스스로 깊이 부패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10장 9절 이스라엘아 기브아 날에 너희가 범죄하여 거기에 계속하였느니라

불의한 자들과의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닥치지 않겠느냐? 기브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첩을 강간한 뒤 그녀를 살해하고, 그 결과 내전이 일어나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참혹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과거사에서

회상하여 현재의 이스라엘의 배반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제가 언급할 것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이르러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 부끄러운 일에 헌신하고 그 사랑하던 것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서 회상됩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과거 이미지를 매우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전처럼 여러분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맞서실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비교네요. 여러분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브올의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고 음행을 행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성서가 그 자체를 언급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때로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나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씌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구약성서, 특히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호세아서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에 대해 사용되는 강력한 이미지와 은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충실한 아내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라는 비유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목록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연구에서 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쯔과 썩은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특별한 비유를 사용하는 찬양 강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우는 사자이십니다. 11장 10절에서는 우는 사자가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생시키는 봄비와 겨울비와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바알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11장 1-4절에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호세아서에서는 가장 가까운 두 가지 인간 관계를 사용하여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주님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11:8-11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파괴하는 사자, 표범, 곰과 같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아모스의 설교 사이의 비유와 비교를 확실히 봅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배도를 회복시키실 치료자이십니다. 호세아 14:4, 그는 상쾌한 이슬과 같습니다. 14장 5절 그는 푸른 소나무 같으니라

14:8장.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직신학의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하여 죄를 징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강력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말할 때 사용되는 비유들은 대부분 그들의 언약 불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불성실한 배우자입니다.

4장 16절, 10장 11절, 11장 4절, 그들은 완고한 암송아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금송아지처럼 되었습니다. 5:13장, 그들은 아프고 종기투성이다.

6장 4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안개와 이슬 같아서 빨리 사라지는 것 같으니라. 그들은 살인자와 범죄자와 같습니다. 6:7-9, 그들은 마치 불타는 풀무와 같습니다.

7:4-7,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들은 한쪽은 타고 다른 한쪽은 날것인 반쯤 구운 빵과 같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선택지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7장 11절, 그것은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의지할 수 없는 잘못된 활과 같으니라. 7장 16절 그들은 마치 거칠고 반항하는 나귀 같으니라. 8장 9절, 그들은 물 위에 떠서 쉽게 옮겨지는 가지 같으니라.

10장 7절, 그들은 반항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11장 1-4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장차 오는 심판으로 인해 안정함 측면에서 날아가는 안개와 이슬과 겨와 연기와 같습니다. 또한 책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효과적인 은유가 나와 있어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물의 홍수와 같습니다. 5.10장, 칼과 같다. 6장 5절, 그것은 번개와 같습니다.

6장 5절, 이스라엘이 거두게 될 수확이다. 6장 11절은 그들을 멸망시킬 회오리바람이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니 회리바람을 거둘 것이다.

야생동물의 공격이다. 13장 8절 해산의 고통이다. 13:13장,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태워버릴 뜨거운 바람과 같습니다. 13.5장. 따라서 이 예언서에는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약의 다른 사건에 대한 암시와 선지자들의 문학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호세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문학적 문제와 역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지만, 해석에 있어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적 학자 대 복음주의 학자 간의 토론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주의

학자조차도 요나서를 역사적 인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니면 비유인가요, 아니면 둘 다의 조합인가요? 요나의 역사성 문제 중 일부는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일부 사건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삼킨 뒤 뱉어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기적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 폭풍우가 닥치게 됩니다. 바다에 쫓겨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물고기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 전체를 먹어치우는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요나 3장에는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베틀을 입고 재를 두른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종류의 과격하고 기이한 일을 초자연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종의 과격한 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는 이 책을 비유로 더 읽어야 한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외국, 특히 앗수르에게 보내신다는 타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시리아의 대응에 대한 역사의 증거는 없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볼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요나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들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외국 민족에게 보내셨다가 갑자기 이 사악한 아시리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이 모든 생각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비역사적이며 문학적 유형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에는 비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나(Jonah), 요나(Yonah)라는 이름은 비둘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실제로 선지자로서 앓수르로 가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서 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상당한 양의 풍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요나가 반선지자로 묘사된다는 점을 여러 면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반대의 예를 고르고 싶다면 요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예언적 소명에 너무 저항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교도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것보다 배 밖으로 던져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풍자가 많아요. 책의 끝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그들의 운명이나 복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 위로 올라올 일광화상이 더 걱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적 요소들은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비유로 보도록 요구합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확실히 많은 문학적 예술성을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나는 책에 대한 그 점을 좋아합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이나 이야기가 문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의 문학적 예술성과 정교함은 역사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서는 그 역사성에 반박하지 않고 예수의 생애를 표현한 매우 예술적인 문학적 창작물입니다.

또 다른 역사적 문제 중 하나는 책에 부정확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진술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관련된 특정 니네베 왕에 대한 언급이나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그런 일을 기대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많이 논쟁해 온 문제 중 하나는 출애굽기의 바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국 왕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는 역사적 표제가 없습니다.

잠재적인 역사적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니스웨시는 나중에 산헤립 시대까지 왕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앗시리아 왕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유다 지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출항하는 항구인 요나는 옵바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역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요나 이야기에 대한 매우 그럴듯한 배경이 있다고 믿으며, 이는 나에게 그 이야기의 신뢰성을 더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 토론을 자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종종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것으로 옹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과도한 변증이라고 부르는 것의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고래, 바다 생물에게 삼켜져 살아남은 사람들의 역사적 사례 중 일부는 이러한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배 밖으로 떨어져 실제로 물고기 배를 잘라낸 선원이나 어부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요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여러 면에서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서 뱉어낸 것을 즉시 육지에 뱉어내고 꽤 빨리 니네베 성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사과를 하는 몇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독단적인 확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단지 비유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정통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의 권위를 믿고, 무오성의 교리를 확증하는 많은 복음주의 친구들과 구약성서 학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몇몇 문학적 이유 때문에, 이것을 포물선적인 이야기에 더 가깝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것이 확실히 비유로 읽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명확한 지표나 장르 표시가 충분히 보이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지표가 때때로 특정 학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결정적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에 역사적 인물이자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그의 영토 확장과 국경 확장에 관해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여로보암 2세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라못 하맛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사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하였느니라 가드헤벨 출신 선지자 아밋대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서 시작 부분에는 머리말이 없지만, 여기 성경에는 실제 역사적 인물인 요나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이미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에게 동정심을 보이도록 이끄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선택된 개인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앗수르인들이 쇠퇴하고 있던 사실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그가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분명히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요나서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실제 역사적 이야기와 설명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성경적 권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순히 이야기에 있는 초자연적 요소에 기초하여 요나의 역사성을 거부한다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있는 다른 많은 이야기와 이야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행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면, 기적으로 가득 찬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와 그 중 일부는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 이야기에서 끝났나요? 우리가 단순히 초자연적인 요소를 무시하려고 한다면 예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렌즈를 본문에 적용하여 거기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150년이나 400년 전에 예언할 수 있었다는 정경적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예언은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설명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무시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하나는 요나 자신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알고 있지만 요나는 12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이 다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제 선지자들의 사역과 사명을 묘사합니다. 실제로 유다를 떠나 이스라엘로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다.

즉 요나 선지자가 실제로 수행했던 메시지와 설교,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가 언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읽고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2장 39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징을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구약성서의 다른 많은 사건과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합하고 열왕기의 역사적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확증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해 줍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반대편에 공평하게 설명하자면, 예수께서는 단순히 잘 알려진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암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를 암시하거나 언급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구약성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징짓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구약의 여러 사건, 노아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나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는 요나서를 역사적 기록으로 읽어야 한다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그리고 독단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이것을 시도하거나 정통성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요나서를 가장 잘 읽는 것은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이야기이거나 비유라고 말할 만한 특정한 장르 표시나 장르 표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가장 가능성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의 일부로 언급했고, 책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제 말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가 외국 땅, 특히 니네베 성처럼 주목할만한 강력한 백성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럴듯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럴듯합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이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기 위해 실제로 수백 마일의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예언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선지자가 이 다른 나라나 다른 왕국에 관해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목적은 그들이 속한 나라들보다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요나 사역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토대로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서에 대한 토론에서 우리는 12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앗수르 시대에 사역한 소선지서들의 사역의 맥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 큰 번영의 시기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 중 하나는 앓시리아 왕국과 앓시리아 제국이 9세기에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대에 아시리아 왕과 아합을 포함한 시리아-팔레스타인 왕 연합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기원전 841년에 예후는 앓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9세기에 이스라엘은 압력을 받았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앓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825년부터 기원전 745년 디글랏빌레셀의 등장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앓수르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요나의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과 요나의 사역에 대해 제안된 날짜 중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기원전 772년에서 760년 사이의 어느 때인가 그곳에서 설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대한 그의 사역과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의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도록 아모스를 북쪽 왕국으로 보내신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시리아가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을 볼 때 그들이 겪은 쇠퇴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니네베와 심지어 아시리아인과 같은 강력한 민족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발생한 사건을 통해 요나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773년부터 756년까지 통치한 아시리아 왕 아슈르단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기근과 민중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나에게 제시한 기간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 기근 등이 너무 심해서 일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앓시리아의 인플레이션은 400%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식량 부족이 있었던 니네베와 같은 도시에서는 그러한 가격과 그러한 것들은 신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했을 수 있습니다. 지진과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일식은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종의 창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연결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식은 종종 일종의 자연재해, 국가적 재난, 군사적 패배 또는 신들의 불만의 전조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분노나 불만의 징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일이 요나가 오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직전에 일어났거나 그가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니스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만든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일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지자로부터 국가적 재앙에 대한 징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 위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리아는 9세기에 하던 것과는 달리 북쪽의 세력인 우라르투의 세력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 작전에 나갈 수 없었다. 아시리아 바로 북쪽에서 이 적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신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온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하찮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야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반응했을까요? 음, 니네베와 물고기 신 숭배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이 이야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시 니네베의 이름은 아카드어인 누누(Nunu)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웨라는 이름이 어촌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2100년 니네베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언급에는 도시 울타리 안에 있는 물고기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니네베 도시와 물고기 또는 물고기 신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기 니스웨의 최고신은 물고기 여신인 난시(Nanshi) 였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경험과 니네베와 물고기 신 숭배 사이에 일종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 이것이 우리가 비유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는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무게를 실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러나 어떻게든 그가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다시 이교 배경과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 또는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앗시리아인들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역사상 다른 시대에는 사실이 아니었을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니느웨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대중 설교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설교는 국가적 부흥의 훌륭한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티머(Daniel Timmer)와 다른 구약성서 학자들은 니네베 사람들이 실제로 진정한 개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재난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신교를 선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독점적으로 고백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앗수르 사람들의 국가적 개종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반응, 이러한 회개가 실제로 앗수르의 나머지 땅이나 다른 나라들, 그 나라의 다른 지역들, 그곳에 있던 지방이나 지방이나 도시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니네베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까? 응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우리는 불과 몇 십 년

만에 아시리아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잔혹하고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실 기록이나 아시리아에 있는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반드시 언급되지 않았을 일시적인 결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부흥에 대한 어떤 형태의 외부 확증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요나서 자체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몇 가지 다른 문제.

니느웨 성은 책에서 큰 성으로 여러 번 묘사됩니다. 1장 2절, 3장 2절, 4장 11절.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라엘로힘이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도시이지만, 일부 해석가, 평론가, 서적과 상호작용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도시로 묘사하는 방식은 과장되고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고 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하나의 성읍이요, 삼일 길에 갈 만한 성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하루 길을 갔으며, 그 전에 2절에서는 니느웨가 너비가 사흘 길에 달하는 심히 큰 성이었다. 이것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40~60마일 정도의 3일간의 여행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월튼(John Walton)은 니네베 도시의 둘레가 약 3마일이었고 도시의 전체 면적이 약 300에이커, 1.5평방마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의 산책이었다고 하면 과연일까요? 그러나 3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3일 걷기에 관해 말하는 것은 관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도시의 위대함을 과장되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말하는 부정확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설교 사역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고려하면 3일 간의 여행이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가면서 유명한 거리와 장소와 시장으로 가거나 성전 밖

지역으로 가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이곳저곳으로 가면서 이 여러 곳으로 가려면 사흘이 걸렸을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걸어서 건너는 데 3일이 걸렸다는 생각을 반드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관용적인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의 역사성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4장 11절에는 니스웨 성의 인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책의 끝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수사적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 큰 성 니스웨에는 오른손과 왼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 있으니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소도 많이? 그래서 이것은 인구 12만명의 큰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120,000명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동물과 대조하는 것은 사람 전체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번호로 무엇을 할까요? 정확합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럴듯한 것을 표현하는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성서에서는 많은 숫자가 부정확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60만 명의 아이들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지, 쌍곡선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온갖 논의가 있습니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일어난 내전에서 하루에 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천문학적인 숫자죠.

수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큰 쌍곡선, 과장된 숫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다른 역사적 기록과 비교할 때 120,000이라는 숫자가 니네베의 인구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865년 아시리아의 칼라(Kala)에 기록된 글에는 왕이 도시를 개방했을 당시 거의 70,000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에 7만명이 있었다면 니스웨 같은 대도시에는 12만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세기 후반에 산헤립이 이곳을 왕궁으로 삼았을 때 아시리아의 인구는 30만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120,000이라는 숫자가 아시리아의 도시 경계와 도시 자체의 환경 내에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과 지역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니네베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칼루(Kalu)에서 북쪽으로 10~15마일 떨어진 코르자바드(Khorzabad) 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120,00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이자 여기서 우리가 다룰 마지막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니네베 왕의 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금식을 명령하고 여기 있는 메시지에 매우 의미심장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니스웨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니스웨 왕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스라엘 왕을 사마리아 왕으로 언급하고 있다.

역대하 24장 23절에는 아람 왕을 다메섹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을 주요 도시와 연관시키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니스웨가 앗수르 역사 후반까지 왕의 수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헤립은 이 일을 한 왕이었고 그는 위대함을 확장하여 훨씬 더 멋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니스웨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두세 가지 그럴듯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인 멜렉은 그 지방의 총독이나 니네베가 속한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통치자를 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시리아의 최고 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스웨는 산헤립 때와 같은 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특정

시대에 왕이 머물던 왕궁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아시리아 역사의 아주 초기, 즉 기원전 1275년에서 1250년 사이에 살만에셀 1세의 통치로 거슬러 올라가면, 살만에셀 1세는 니네베 도시를 확장하고 확장했습니다.

왕의 거처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가 거기에 있었을 때로부터 300~400년 이상 전인 디글랏-빌레셀 1세 시대에는 그곳이 왕의 대체 거주지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나중에 아시리아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최종적인 왕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왕이 거주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르적 문제가 역사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바라보며 사용했던 주장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내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성경 주석이라는 단어에 대한 주석에서 책에 묘사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청중이 인물과 상황에 대한 실존적 동일시가 변함없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에게서 받은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 중 하나인 앗수르인의 놀라움과 충격의 가치가 무게와 감동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함과 이 책의 메시지.

이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을 더 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역사적 기록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유인가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를 실제 선지자로 보고, 니느웨에 대한 선교와 설교를 그가 수행한 실제 사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는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요나의 궁극적인 권위는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나서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요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 점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요나서 소개, 역사성입니다.